

2019년 4월 5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S&P500, 경기 자신감 속 6일 연속 상승 연준위원들, 견고한 고용시장과 완만한 인플레이 압력 언급

### 미 증시 변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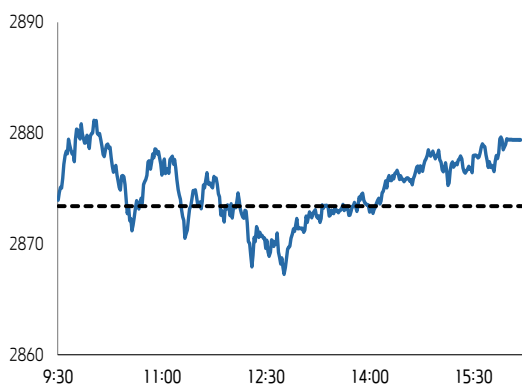
미 증시는 막바지에 다다른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속에 상승 출발 했으나, 차익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 그러나 오후 들어 연준위원들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과 금융, 소매유통업체들의 강세에 힘입어 재차 반등을 보임(다우 +0.64%, 나스닥 -0.05%, S&P500 +0.21%, 러셀 2000 +0.42%)

연준위원들이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 지난 3 월 금융시장에 영향을 줬던 경기 둔화 우려감을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는 긍정적이며, 올해 2% 내외 성장을 예상한다” 라고 언급. 더불어 “고용시장은 안정적이며 인플레이 압력이 높아진다는 신호는 없다” 라고 주장.

더불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또한 “고용시장은 견고하고, 성장률은 2%를 상회할 것이다” 라고 주장. 더불어 “가계지출은 증가하겠지만, 기업투자는 둔화될 수 있다” 라고 언급. 이를 토대로 올해와 내년에 각각 한번씩의 금리인상이 타당하다고 주장.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또한 2% 이상의 성장을 언급하며 “최근 경기 둔화 우려는 일시적이다” 라고 언급. 더불어 경제가 예상처럼 견고하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렇듯, 연준위원들은 미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이야기 하고 있어, 일부에서 제기되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전망. 물론 이날 발표된 독일 제조업 수주가 전월 대비 4.2% 감소되는 등 독일을 중심으로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감은 여전히 상존. 그러나 이 또한 전일 발표되었던 서비스업지수가 개선되는 등 소비지표들이 견고해 유로존 경기침체 가능성도 낮음. 미 증시는 이러한 변화 요인을 토대로 장 초반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반등에 성공.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06.53	+0.15	홍콩항셱	29,936.32	-0.17
KOSDAQ	751.58	+0.30	영국	7,401.94	-0.22
DOW	26,384.63	+0.64	독일	11,988.01	+0.28
NASDAQ	7,891.78	-0.05	프랑스	5,463.80	-0.09
S&P 500	2,879.39	+0.21	스페인	9,534.10	+0.49
상하이종합	3,246.57	+0.94	그리스	745.00	-0.59
일본	21,724.95	+0.05	이탈리아	21,705.60	-0.2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소매유통업종 강세

보잉(+2.89%)은 보잉737맥스 추락사고가 기체 결함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상승을 했다. 페이스북(+1.43%)은 구켄하임이 실적 개선을 이유로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중립→매수) 하자 상승 했다. 디즈니(+1.98%)는 어벤져스가 1일 티켓판매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에 힘입어 상승 했다. 메이시스(+5.61%)는 실적 기대감이 유입되며 상승 했다. 콜스(+3.45%)를 비롯한 L브랜드(+2.74%), 타겟(+2.61%) 등 소매 유통업체들도 동반 상승 했다.

테슬라(-8.23%)는 유럽과 중국으로의 긴 운송시간으로 수출 물량이 31%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 했다. 마이크론(-2.30%)은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관련주가 펀더멘탈이 변하지 않은 가운데 주가가 상승해 우려스럽다며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비중축소로 하향 조정하자 하락 했다. 사무용품 판매 회사인 오피스디포(-23.61%)는 자회사인 CompuCom 부진으로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급락 했다. 존슨앤존슨(-1.17%)은 베이비 샴푸 관련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하락했다. 보안솔루션 업체인 포티넷(-4.56%)은 부진한 실적 우려로 급락 했다. 세일즈포스(-2.52%), 인튜이티브(-2.40%) 등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동반 하락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82%	대형 가치주 ETF(IVE)	+0.48%
에너지섹터 ETF(OIH)	+1.27%	중형 가치주 ETF(IWS)	+0.35%
소매업체 ETF(XRT)	+1.15%	소형 가치주 ETF(IWN)	+0.94%
금융섹터 ETF(XLF)	+0.61%	대형 성장주 ETF(VUG)	+0.02%
기술섹터 ETF(XLK)	-0.42%	중형 성장주 ETF(IWP)	-0.2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18%	소형 성장주 ETF(IWO)	+0.05%
인터넷업체 ETF(FDN)	-0.51%	배당주 ETF(DVY)	+0.38%
리츠업체 ETF(XLRE)	-0.26%	신흥국 고배당 ETF(DEM)	+0.58%
주택건설업체 ETF(XHB)	+1.3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08%
바이오섹터 ETF(IBB)	-0.41%	미국 국채 ETF(IEF)	+0.10%
헬스케어 ETF(XLV)	-0.21%	하이일드 ETF(JNK)	+0.20%
곡물 ETF(DBA)	+1.25%	물가연동채 ETF(TIP)	+0.06%
반도체 ETF(SMH)	+0.12%	Long/short ETF(BTAL)	+0.0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92.11	+0.86%	+0.39%	+2.71%
소재	362.21	+1.01%	+5.09%	+6.25%
산업재	647.22	+0.60%	+3.38%	+3.71%
경기소비재	924.49	+0.71%	+3.11%	+7.69%
필수소비재	572.51	+0.37%	-0.63%	+3.33%
헬스케어	1,057.84	-0.24%	+0.74%	+2.23%
금융	441.01	+0.49%	+3.56%	+2.62%
IT	1,326.56	-0.44%	+3.11%	+8.52%
커뮤니케이션	162.27	+0.66%	+3.21%	+4.64%
유틸리티	291.77	-0.39%	-0.55%	+0.94%
부동산	224.76	-0.29%	+0.07%	+4.4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행보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19% MSCI 신흥 지수 ETF 도 0.64%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1,643 계약)에 힘입어 0.85pt 상승한 288.1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5.4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위원들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은 한국 증시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막바지에 다다른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또한 긍정적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협상이 아니면 아예 안할 것” 이라고 주장하는 등 아직은 지켜 봐야 되는 이슈가 남아 있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가운데 전일 한국 증시에 일부 반영된 모건스탠리의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는 여전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외국인의 행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더불어 지난 1 월 삼성전자 실적 발표 당시에는 이미 주가가 지속적으로 조정을 보였기에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상승 했지만, 현재는 연초 대비 21% 상승했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감안 오늘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삼성전자에 대한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독일 제조업 수주 둔화

2 월 독일 제조업 수주는 전월 대비 4.2% 감소했다. 예상치(mom +0.3%)는 물론 지난달 발표치(mom -2.1%)를 크게 하회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1.2 만건) 보다 감소한 20 만 2 천 건으로 발표되었다. 4 주 평균 또한 지난주(21 만 7,500 건) 보다 감소한 21 만 3,500 건을 기록해 견고한 고용시장의 흐름을 보였다.

3 월 미국 대량 해고자수는 전월(76,835 건) 보다 감소한 6 만 587 건을 기록했다. 이를 감안 고용시장의 견고함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관망세가 짙은 하루

국제유가는 낙관적인 미-중 무역협상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및 재고 증가 여파로 하락 했다. 다만,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으로 향후 수요 증가 기대감 또한 증가 했다는 점, 리비아 내전이 격화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공급 감소 가능성이 높아져 낙폭은 제한 되었다. 한편, 시장 참여자들은 다음주 있을 주요 기관들의 월간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경향을 보였다.

달러화는 연준위원들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독일 제조업 수주 둔화에 따른 유로존 경기 위축 우려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다음 주 EU 긴급 정상회담(10 일)을 앞두고 브렉시트 우려감이 여전히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미 국채금리는 연준위원들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고 올해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하자 단기물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장기물은 인플레이 압력이 낮다는 점이 부담이 돼 하락하는 등 보험권 혼조 양상을 보였다. 특히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진 점도 변화 제한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영향을 받아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32% 철근은 0.59%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2.10	-0.58	+4.72	Dollar Index	97.274	+0.19	+0.07
브렌트유	69.40	+0.13	+3.43	EUR/USD	1.1223	-0.09	+0.02
금	1,294.30	-0.08	-0.08	USD/JPY	111.61	+0.11	+0.89
은	15.084	-0.12	+0.74	GBP/USD	1.3081	-0.59	+0.28
알루미늄	1,895.00	-0.05	-0.42	USD/CHF	1.0001	+0.19	+0.45
전기동	6,451.00	-0.63	+1.43	AUD/USD	0.7118	+0.07	+0.62
아연	2,897.00	-1.13	+1.05	USD/CAD	1.3353	+0.06	-0.63
옥수수	365.25	+0.69	-2.34	USD/BRL	3.8531	-0.48	-1.25
밀	470.75	-0.05	+1.35	USD/CNH	6.7137	-0.01	-0.38
대두	906.50	+0.86	+1.91	USD/KRW	1136.30	+0.18	-0.04
커피	95.30	-0.05	+1.38	USD/KRW NDF1M	1135.45	+0.17	+0.05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508	-1.61	+11.34	스페인	1.107	-3.00	+2.00
한국	1.872	-1.50	+6.70	포르투갈	1.259	-0.70	-0.80
일본	-0.044	+0.10	+4.60	그리스	3.602	-4.10	-16.80
독일	-0.006	-1.40	+6.30	이탈리아	2.516	-2.30	+3.30